

# BASF, 매출액 100조원 “육박”

2010년 630억유로에 세전수익 80억유로 상회 ... 4/4분기 호조 지속

BASF는 2010년 매출액이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화학 메이저인 BASF는 10월20일(현지시각) 2010년 영업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BASF는 10월20일 성명을 통해 2010년 매출액이 630억유로(약 98조8000억원)로 증가하면서 이자 및 세전수익이 80억유로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08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BASF는 3/4분기에 이자 및 세전수익이 22억유로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함에 따라 1-9월 이자 및 세전수익이 89% 증가한 64억유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4분기 매출은 23% 증가한 158억유로를 기록했으며 1-9월 매출액은 475억유로로 27% 증가했다.

이어 BASF는 4/4분기에도 영업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21>